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and times.

# 할리우드 스타 줄지어 내한

## 디카프리오 이어 '아이언맨 3'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방문

할리우드 스타들의 내한 러시가 쉽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아널드 슈워제네거, 이달 7일 할리우드 톱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내한한 데 이어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사진)를 비롯해 할리우드 정상급 스타들의 내한이 앞으로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할리우드 영화 수입배급사들에 따르면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최신작 '아이언맨 3' 개봉(4월25일)을 앞두고 영화 홍보차 오는 4월 3일 내한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내한은 2008년 4월 '아이언맨 1' 편 개봉 첫 방문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한국을 한 번 다녀간 할리우드 스타들은 한국 팬들의 열렬한 호응과 환대에 좋은 인상을 품고 돌아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해외 홍보 행사 일정에서 한국이 첫 방문지로 선정됐다. 이에 더해 오는 4~6월까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개봉이 이어지면서 주연 배우나 감독 등 정상급 스타들의 내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톱스타 브래드 피트가 SF 블록버스터 '월드워 Z'의 개봉(6월)을 앞두고 내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영화화 판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이자 제작자, 프로듀서로 나설 정도로 큰 역할을 지니고 있어 해외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오는 5월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다크니스'의 감독이나 배우도 내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 영화의 할리우드 투자배급사인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국내 수입배급사인 CJ엔터



테인먼트 양측의 홍보·마케팅 의지가 강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할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K팝의 세계적인 인기와 박찬욱, 김지운, 이병헌, 배두나 등 한국 감독,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에 따라 할리우드 영화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도 할리우드 스타들의 내한 러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손예진, KBS '상어' 여주 발탁

배우 손예진(31)이 KBS 2TV 월화극 '상어'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상어'는 '부활' '마왕'의 김지우 작가가 쓰는 정통 멜로 드라마다. 가족의 복수를 위해 사랑하는 여인에게 칼끝을 겨누는 남자와

침정민 사랑 앞에 흔들리는 여자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다. 손예진이 연기하는 조혜우는 가요호텔그룹의 외동딸로 열정적이며 도도한 캐릭터다. 손예진은 "밀도 있는 이야기와 깊이 있는 캐릭터에 매료되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정통멜로는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한다. 배우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감성들을 깊고 풍부하게 표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오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음 2월 16일 壬辰). 운세 정보 including zodiac signs and horoscope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Language learning content with three columns: 1. 'Make it two' (저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2. '刻舟求劍' (각주구검), 3. '酒香不怕巷子深' (목이 필요없는 장사 잘되는 가게). Includes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Chinese characters.